

메드라인 투자, 광주시·지역사회 노력을

투자 정보 유출로 4월 투자 일정 차질 우려...메드라인 "제3자에 넘어갔다는 추정만으로 수사 의뢰 반대"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메드라인(Medline)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물론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드라인의 투자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투자의향서 즉 LOI(Letter Of Intent)를 제출하고 오는 4월 투자 예정이었던 기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세계적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반성과 보완도 시급하다.

메드라인 투자 정보의 유출과 관련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시 전라산업본부가 지난 23일 '메드라인 투자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감사위 감사에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이 관련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광주시 또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와 메드라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깊은 신뢰를 갖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빗그린산단 내 공장 착공식 등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전라산업본부를 거쳐 메드라인 관련 투자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된 뒤 다른 곳으로 건넬었다는 근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광주일보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난 메드라인 관계자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나 청와대로 투자 정보가 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정치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드라인 측은 지난 9일 전라산단 입본부 내 투자유치과가 자동차산업과로 투자 정보를 전달한 당일 이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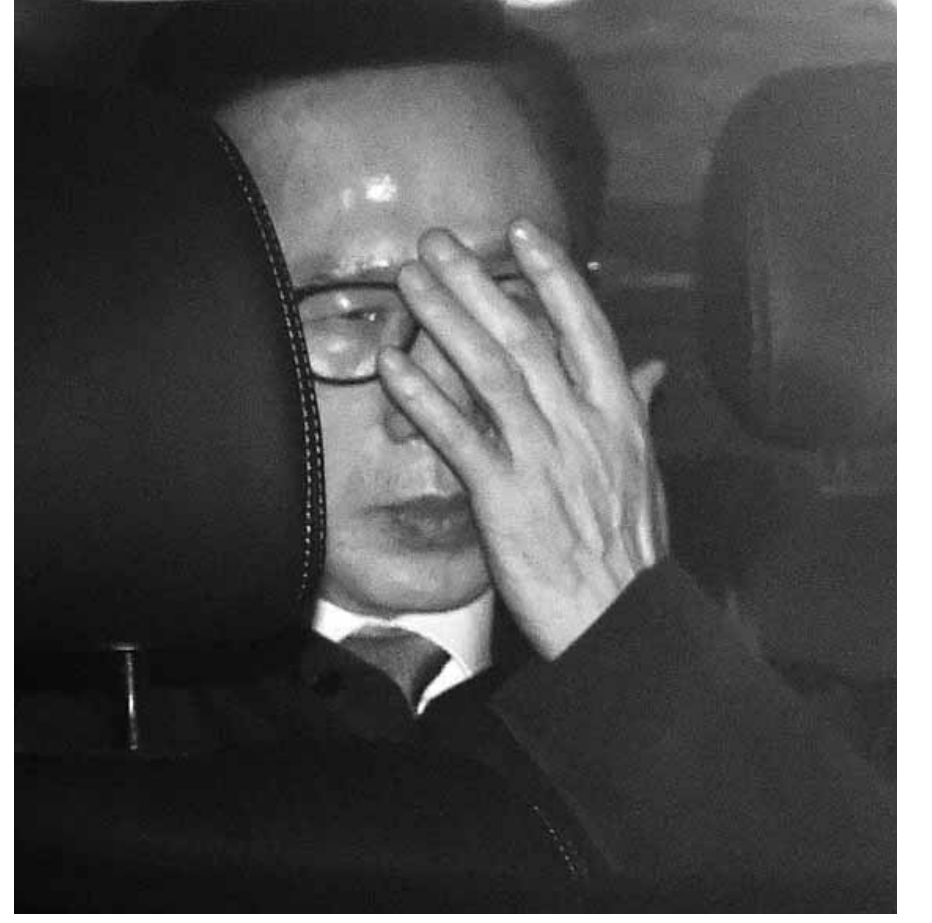
이후 13일 메드라인 투자 유치사업을 추진한 전라산단본부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후 불안감이 높아졌고, 15일 본사에서 "관련 정보에 대해 관리를 잘해 줄 것"을 지시하자 박병규 경제부시장에게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이 메드라인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가 청와대

로의 정보 전달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협약서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마치 실체가 없는 투자인 것처럼 설명해 어찌구무가 없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메드라인에 언급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추정만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메드라인은 연매출 92억 달러(한화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적 기업으로, 고용 직원은 1만5000명에 달하고 2017년 포브스 선정 미국 비상장기업 32위를 차지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력을 기울여 한국 투자자를 광주로 이끌었으며, 메드라인은 3000억원대의 투자를 통해 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윤현석기자 chadol@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탄 자량이 지난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로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게 남북 교육교류 길 열어달라”

광주시교육청, 靑에 제안

광주시교육청은 정부당국에 수학여행단 남북 등 '남북교육 교류의 길'을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학여행단 남북 등 남북교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안서는 남북 학생교류, 광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남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남북 허용도 제안됐다.

금강산·개성·백두산 등 북한의 명소를 학생들이 찾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4월 중 지역의 전문가들로 기획팀을 구성해 남북 교육교류의 방향, 단기·중장기 과제,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학금 광주시교육감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교육·청소년 교류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UAE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 광장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베푼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 대통령궁에 도착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함께 도열병을 통과한 후 공식 환영식장 단상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UAE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모하

메드 왕세제와 함께 대통령궁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확대·단독회담을 개최한 후 공식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UAE 전물장부 추념비인 '와하트 알 카라'를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UAE 순교자의 날인 2016년 11월 30일 개관했으며 2016년 12월 5일부터 대중에게 개방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추모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2박3

일간의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전 대이 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23일 오전 베트남 공산당사에서 응우옌 푸 쯩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그간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사랑이 되는 협력', '지속가능한 호혜 협력', '미래 동반 성장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재산관리인 또 입 여나

오늘 청계재단 이병모 첫 재판·30일 '금강' 이명배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흥은프렌즈'에서 10억 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흥은프렌즈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운'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고, 시형씨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일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금강'의 이명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흥은프렌즈'에서 10억 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스 협력사 '다운'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들 두 사람은 과거 '정호영 특검팀'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태도를 바꿔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봄이 온다’ 南 예술단 내달 1일 평양서 단독 공연·3일 협연

남측 예술단은 다음달 1일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한 뒤 3일에는 남북 협연을 할 예정이며, 공연 제목은 '봄이 온다'로 정해졌다.

타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연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지난 22일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방문,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예술단의 공연 준비작업을 협의해 이같이 공연 일정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예술단은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북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체육관에서 각 1회씩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연에 오를 우리 가수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지 관심이 있다.

13년 만에 평양 공연을 펼치는 '가왕' 조용필은 약 40년간 함께 한 밴드 '위대한 탄생'과 무대에 오른다.

태 번째 평양 공연이자 네 번째 방북인 최진희는 "'사랑의 미로'와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미련 때문에' 등 4~5곡을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희는 지난 2003년 류경 정주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에서 선보인 'J에게'와 '아름다운 강산'을 포함해 여러 곡을 선곡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MBC 평양 특별공연' 이후

16년 만에 평양에 가는 YB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곡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첫 평양 공연에 나서는 가수들의 선곡도 관심이 모아진다.

백지영은 '사랑 인헤', '총 맞은 것처럼', '그 여자', '내 귀에 캔디' 등의 히트곡 위주로 목록을 제출했다.

걸그룹 레드벨벳은 '피카부', '빨간 맛', '배드 보이', '러시안롤렛' 등의 히트곡 중에서 공연 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 가수들은 28일 국내에서 한차례 연습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서구 3683㎡ 투자성 좋은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시 30분 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특임리 바다접 2481㎡ 민박업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 · 원룸 · 아파트

- 울산동 송마리피트원 토지 166㎡ 건평 180㎡ 3세대생활 2억5천
- 울산동 소방도로접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5700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 1억4500
- 울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신안동 전대문로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장성 모텔 땅 364㎡ 건평 164평 감정 5억6천 은행 3억 매도 4천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정간내 재개발지역 대로면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접 준공업지 1702㎡ 급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면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사귀포시 발달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울산동 우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청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청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카페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음 12억
- 울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성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림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임암동 호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면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육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면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육적합)
- 광명동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척리 재개발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선척리 1층주거지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읍시 신성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 2실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션, 카라방,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불대폭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